

‘예산·탄핵’ 이번주 본회의의 표결... 여야, 전면전 예고

대통령실·검찰 등 특활비 삭감...민주 ‘표결’ vs 국힘 ‘추가 협상 없어’ 우원식 의장, 막판 여야 의견 청취...감사원장·검사 탄핵 처리도 대치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표결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해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통령실·검찰·감사원·경찰의 활동비가 전액 삭감됐고, ‘대양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정부 역점 사업과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 등도 대폭 감액됐다.

대신 증액 사안인 민주당이 원한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이나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며 야당에 강공으로 맞설 태세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부·여당 압박용 카드로 현정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를 감행했다고 보고 있다.

야당의 정치적 목적이 명확한 만큼, 향후 감액 예산안을 지렛대로 한 야당의 각종 협상 시도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전액 삭감된 사정기관 예산 등의 복원 가능성을 빌미로 한 야당의 예산 거래를 용인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2일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상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 보는 분위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예산안을 상정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데다, 야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가해지는 지역 예산 압박도 적지 않을 것으로 여긴다.

우 의장 측도 감액 예산안 상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우 의장이 여야 및 정부 간 협의를 강조하며 민주당 주도 감액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 의장은 2일 본회의의 전 막판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해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여야는 민주당 주도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처리를 놓고도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일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인을 포함한 공직자 4명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바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1년 8개월간 진행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가 부실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최 감사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정기관에 ‘보복 탄핵’을 하고 있다며 표결 전까지 여론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원하는 감사·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을 두고 ‘탄핵 카드’로 공직자 겁들이기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우 의장 주재로 12월 본회의 의사일정 및 본회의 상정 안건 등을 논의했는데, 당시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예고하지 않았던 민주당이 이를 뒤 돌린 ‘감사원장 탄핵 추진 및 2일 본회의 탄핵안 보고’ 방침을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최소한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우 의장이 나서서 조율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이재명 대표-이철우 경북지사, TK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전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재표결 앞둔 ‘김건희 특검법’ 기류 바뀐 친한계

부결 → 유보 변화...계시판 내용 길어지자 친윤계에 경고 메시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한동훈 대표 가족 연루설이 제기된 ‘당원 계시판’ 논란으로 내용이 거둬지자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특검법 재표결 입장에 대한 ‘이상 기류’가 감지되면서다.

이와 관련해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1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당분간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한 대표는 가까운 인사들에게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앞서 지난 10월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을 당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검찰이 김 여사 이름이 오르내린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만큼, 향후 여론을 살펴보고 특검법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는 뜻이라는 게 친한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론 안팎에서는 한 대표와 친한계가 김 여사 특검법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당원 계시판 논란을 제기하는 친윤(친윤석열)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친한계가 친윤계와 대통령실의 ‘약한 고리’인 특검법을 건드려 한 대표 방어에 나섰다는 것이다.

친한계는 당원 계시판 논란의 최종 목적을 ‘한동

훈 끌어내리기’로 보고 있다. 친한계 일각에선 친윤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고려하면 대통령실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한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부결을 호소했던 지난달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 이태표가 최소 4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 대표가 유보적 입장을 고수할 경우 이번 이태표 규모는 더 늘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다만 한 대표가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거나, 특검법이 실제 재의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작다는 게 여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실은 물론 여권 전체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고, 이는 한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문금주,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1일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도적 한계로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된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효율적으로 단속 및 관리하기 위해 수입에서 판매까지 유통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 등은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을 농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림부 장관은 수입업자의 유통이력 신고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



는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통이력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업자 및 수입업자가 유통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한 근거가 없는 탓에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야의정 협의체 결국 ‘좌초’

의료계 “당정, 사태 해결 의지 없어” 참여 중단 선언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외과대학의

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이날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

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핵심 이슈였던 의대 정원을 놓고 끝내 의료계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기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지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